

사람을 섬기는 경영,*

반세기 교육출판 외길 걸어온 교.학.사.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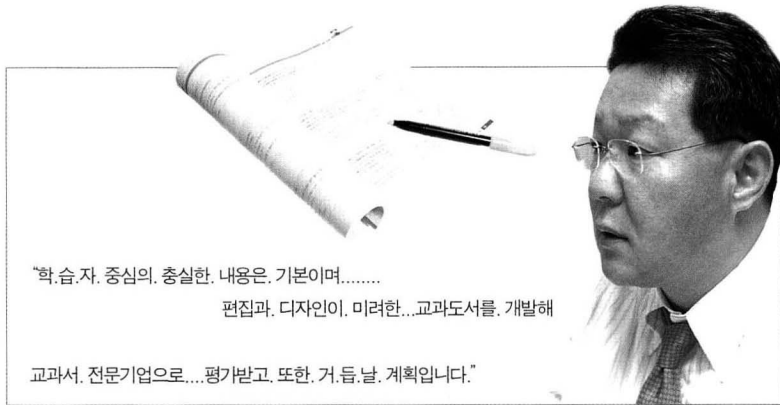


▲ 교학사란 이름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교학사 대표 학습서.

◀ 교.학.사.는 1951년 5월 15일 설립되어 지금까지 교육출판 외길을 걸어온 특색 있는 출판사다.

*
*
*
*

표준진과, 완전학습, 필승평가문제, 고입총정리... 교학사란 이름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교학사의 학습서 브랜드다. 변함없이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학사의 학습서는 현재형의 의미만 갖지 않는다. 지금의 3,40대에겐 학창시절을 추억케 하는 친근한 이름인 것이다. 교학사에서 만난 그 옛날 표준진과와 완전학습은 실제 기자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한 손에 잡기도 힘든 두툽한 표준진과와 알팍하니 보기 좋던 완전학습 몇 권을 사는 날이면 마치 우등생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지 않았던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의 변함없는 벗이 되어준 출판사 교학사로 들어가 보자.



“학습자 중심의, 충실한. 내용은 기본이며.....
 편집과, 디자인이, 미려한...교과도서를, 개발해
 교과서. 전문기업으로...평가받고, 또한, 거.듭.날, 계획입니다.”

(주)교학사는 1951년 5월 15일 설립되어 지금까지 교육출판 외길을 걸어온 뜻심 있는 출판사다. 국민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기업정신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학습서를 비롯해 아동도서, 사서, 도감, 대학교재들을 개발, 출판해 오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전통은 그 자체로 값진 것이기도 하겠지만, 교육출판을 담당하는 교학사에 있어 전통은 훌륭한 마케팅의 역할을 겸임한다. 교학사의 교과서와 학습서로 공부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교학사의 출판물을 자신 있게 추천하는 까닭인데, 지금까지 교학사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대를 내려오는 신뢰’에 있다 할 것이다. 교학사의 전통을 말하는 데 있어 또한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 양철우(79) 대표다. 설립자에 대한 대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여든을 목전에 둔 나이에도 양 대표는 가장 먼저 사무실에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교학사의 변함없는 현역이다.

★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키우겠다는 교육정신이 뿌리 깊은 분입니다. 많은 연세에도 경영에 있어서는 신진 못잖은 열정을 보이시지요. 아침 6시 5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해 부서별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아침형 인간의 모델로 보아도 좋을 분이지요.”

편집기획실 양진오(42) 부장이 밝히는 양 대표의 모습이다. 양 대표의 차남이기도 한 양진오 부장은 편집부 2년, 영업부 5년, 공장 3년 등 교학사 전 부서를 돌며 업무의 전반을 익히고 있다. 현재는 경리부서로 발령받아 기본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경영수업인지를 묻는 기자의 말에 양진오 부장은 손사래를 친다.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전문경영인을 끌어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능력을 중시하는 양 대표 역시 아들이라 해서 가업을 쉽게 넘길 사람은 아니란다. 능력(能力)과 정도(正道)를 중시하는 교학사의 면모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교학사 출판물의 중심은 단연 교과서와 학습서다. 1955년 제1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를 제작하기 시작해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니, 출판의 역사가 교육의 역사와 맞물려 움직인 셈이다. 특히 이번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정교과서 67종(초등학교 6종, 중학교 58종, 특수학교 3종), 검정교과서 195종(중학교 78종, 고등학교 117종), 인정교과서 64종(초등학교 38종, 중등학교 1종, 고등학교 25종)으로 최고발행종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참고서 부문에서도 교학사의 두각은 여전하다. 앞서도 밝혔듯, 표준전과 완전학습 필승평가문제 고입총정리 등의 학습서들은 세대를 이어오는 스테디셀러로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며, 고득점시리즈 능수능란시리즈 등의 학습서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온라인 에듀사이트의 등장으로 학습서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표준전과는 작년 5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가며 교학사 학습지의 견재함을 과시했다. 물론 두 분야의 출판물만 주목받은 것은 아니다. 실용서《전국여행 슈퍼정보》는 75만 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이며, ‘한국의 자연시리즈’는 꾸준히 독자들의 손길을 타는 스테디셀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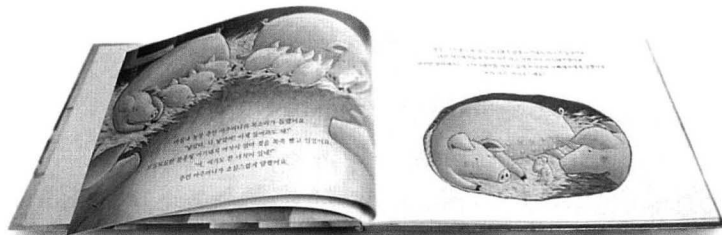
“교학사의 학습서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정적인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브랜드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대를 거쳐 평가를 받는다는 긴장감이 있지요. 독일과 일본의 학습서 출판사를 찾아 트렌드를 주목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캐나다 랭글리 교육청과 교육협약을 체결해 영어교재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월드키드’라는 이름으로 첫 세트를 선보였는데 학원교재로 반응이 좋습니다. 전통 있는 학습서의 명맥을 잇는 한편, 새로운 것에도 과감하게 승부를 걸 줄 아는 출판사입니다.”



▲ 편집팀 식구들과 편집팀 전경.



“교학사에도 좋은 아동도서들이 많답니다”



“교학사의 책은 교과서와 학습서뿐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이들의 책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책이 너무 예쁘고 내용도 아주 좋더군요. 제가 어릴 때 보던 학습서를 만드는데서 우리 아이가 읽을 책을 만든다는 것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교학사 유아·아동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느 학부모가 올린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학사하면 교과서와 학습서를 떠올릴 뿐 아동도서를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 그러나 교학사에는 분명 아동도서출판부가 있고, 독자의 글처럼 어느 아동전문출판사 못지않은 좋은 책을 내고 있다.

“교학사 아동도서출판부는 실력을 갖춘 부서입니다. 지난달 작고하신 어효선 선생이 20년 넘게 맡기도 하셨지요. 교육출판 이미지가 강해 아동도서를 어필하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작은 제약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아동학습에 도움을 주는 책을 낸다면 부모들의 신뢰가 있는 만큼 더 큰 관심을 모을 수도 있지요.”

김인에(35) 과장의 재치 넘치는 역발상이다.

교학사 아동도서출판부는 유아용 그림책, 취학 전 도서, 초등학생 도서를 구분해 제작하고 있다. 이원수 어효선 등 한국아동문학의 대표작가부터 차보금 이규희 이림 등 영향력 있는 신진작가들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데, 문학 위인 역사 과학 학습교양 등으로 구분된 장르도 아동도서출판의 전문성을 실감케 한다.

“최근 나온 《여자는 힘이 세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승희, 박에스더, 제인 구달 등 세상을 바꾼 여성위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여자아이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세계와 한국의 여성위인을 뽑았지요. 어린이도서연구회와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에서 좋은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교학사와 인연이 많은 강소천 선생님과 어효선 선생님의 작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동도서출판부만의 장점을 물었더니 김인에 과장은 부서원들의 성실함과 순수함을 꼽는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마음은 공통분모, 트렌드를 쫓는 가벼운 아동도서는 이들에게 절대사절이다. 교학사의 아동도서가 아동출판시장에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학사에도 좋은 아동도서들이 많답니다. 후반기에 자랑하고픈 책들이 많이 나올 예정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도서출판부에서 좋은 책을 꾸준히 내다보면 교학사란 이름을 아동도서가 대표할 날도 올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연륜만큼, 교학사는 내세울 장점도 많다. 그 가운데 국어문제연구소와 교학지도표현연구소의 운영은 출판사가 나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국어문제연구소에서는 이질화된 국어의 동질화운동, 파괴된 언어순화운동, 실천국어생활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남북통일을 가정으로 통일교과서를 연구하는 장기적인 과제도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 교학지도표현연구소는 지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지도연구소로 꼽힌다. 일본 지도 전문회사 제국서원에서 정기연수를 갖는 교학지도표현연구소 직원들은 선진 정보를 교환하며 국내 지도제작에 관한 고급정보를 집적해 오고 있다.

★

“교학사의 강점 가운데 자동화·현대화 시설을 갖춘 자체 인쇄공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79년 제1공장 설립에 이어 1993년 제3공장까지 설립했지요. 부지가 10만 평, 최대생산능력으로 인쇄 2억2,320만 부, 제본 2억3,040만 부(1일 24시간 기준, 연 300일 가동, 1부 4×6배판 300쪽 기준)의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학사의 전 출판물을 비롯해 신동아 여성동아 주부생활과 같은 잡지와 홈쇼핑 대형할인매장의 제작물도 대량인쇄에 한해 위탁받아 작업합니다.”

교학사 자체시설로 자본누수는 말할 것도 없고 위탁인쇄까지 맡고 있으니 교학사 경영에 특특히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출판에 뿌리를 둔 만큼 교학사는 사회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용옥장학재단을 통해 작년까지 1,4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격년으로 시행하는 교사해외연수를 통해 340명의 교사가 교육연수를 지원받았다. 계몽사에서 운영했던 소천아동문학상을 2000년부터 가져와 지난 5월 제36회 소천아동문학상 시상식을 갖기도 했다.

★

“교학사는 최근 개정 예정 직제로 ‘교과서 사업본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자인 연구소’ 기획도 추진중에 있지요. 국정교과서 719종이 풀리는 국정교과서 자유발행제가 곧 시행될 예정인데, 교과서 최고발행중수를 기

록한 출판사인 만큼 준비도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중심의 충실한 내용은 기본이며, 편집과 디자인이 미려한 교과도서를 개발해 교과서 전문기업으로 평가받고 또한 거듭날 계획입니다.”

교학사가 자신 있게 밝히는 비전이다. 최근 일고 있는 학습서 불황에 대한 타개책이 아니다. “고3 학습서에 약한 면을 보였지만, 초·중·고 학습지를 폭넓게 가진 교학사에 미치는 파급은 미미할 뿐”이라고 양진오 부장은 근간의 입장을 밝힌다.

교학사 앞에서 ‘강산도 변하는 10년’이란 문장만큼 무색한 것은 없다. 53년을 흘러왔지만 교학사의 교육출판 정신은 변함이 없다. 교학사가 바탕은 물론 교육출판 정신에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면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양철우 대표의 경영마인드에 있다. 실제 교학사에는 예순을 넘긴 간부급 직원들이 많다. 40대의 양진오 부장도 교학사에선 젊은 축에 속하니, 이는 교학사가 갖는 이색임이 분명하다. 종속관계가 아닌, 내 사람이냐 아니냐의 관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양 대표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패기도 좋다. 그렇지만 안정과 변화의 대세를 지혜롭게 간파할 줄 아는 관록이 더 좋다는 교학사. 교과서 전문출판사로 거듭나겠다는 교학사의 비전이 제법 현실성 있게 들리는 건, 진득하니 꿈국 같은 교학사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믿음 때문이다. [4]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